



보도시점

2025. 12. 24.(수) 12:00

배포

2025. 12. 24.(수) 08:30

2025년산 사과·배 총 생산량 전년 대비 1.1% 소폭 증가

- 배·감귤·딸기는 전반적인 생육 양호로 전년 대비 생산량이 증가하였고, 사과·단감·포도는 전년 대비 생산량 감소
-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하고,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 가용 물량의 분산 출하로 안정적 공급 지원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

[주요 과일 수급 동향]

Ⅰ 사과·배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사과 저장량(12~7월 출하)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과 저장량 전망(KREI) : ('24) 229.5천톤 → ('25) 228.6천톤 (전년비 0.4%↓)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

② 감귤류·포도·단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소하고, 대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가한 458천톤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노지감귤은 402천톤으로 전년 대비 8.1%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 공급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0.8%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포도 생산량은 전년 대비 2.0% 감소한 195천톤으로 추정된다. 재배면적은 3.5% 감소하였으나, 성목화로 인해 10a당 생산량 1.5% 증가하였다. 다만, 포도(샤인머스켓) 저장량은 전년 대비 4.0% 증가하여 설 명절까지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단감은 수확기 강우가 지속되며 탄저병이 증가하여 생산량은 전년 대비 3.1% 감소한 90천톤으로 전망된다. 재배면적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③ 딸기

딸기는 겨울철 주산지 기상여건 호조 및 병해충 감소 등 작황이 양호하여 12월 출하량은 전년 대비 4.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월 이후에도 작황 양호에 따라 출하량은 안정세일 것으로 전망된다.

[과일류 수급 안정 대책]

농식품부는 배, 감귤, 포도, 딸기 등 주요 과일의 공급 여건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사과는 전년 수준의 저장량에도 불구하고, 봄철 저온 피해 등으로 대과(大果)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고품위과 위주로 가격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산 사과가 수확될 때까지 정부가 출하시기와 출하처를 지정하여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을 확대 공급하고,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수요에 따라 분산 공급하여 안정적으로 사과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산 과일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과수·과채 생육관리협의체를 중심으로 생육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시기별 이상기상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기술지도 및 방제약제 적기 살포 등을 통해 빈틈 없이 생육을 관리하여 안정적인 과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기존의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을 ‘농식품 시장관리과’로 개편하여 농식품 수급 안정에 기민하게 대응한다. 원예농산물을 비롯한 농축산물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생육 불안 상황에 적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유통소비정책관 원예경영과	책임자	과 장	신지영 (044-201-2251)
		담당자	사무관	이창형 (044-201-2252)